

“동국대 불교이동학과 신입생 교사자격증 취득할 수 없다”

사범계열 유아교육학과 신설로 ... 전과요구 '예상'

올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이동학과 신입생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가 올해 사범계열의 유아교육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불교이동학과(정원 50명)에 주어졌던 유아교사자격(정원 30%)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불교이동학과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유아교육학과(30명)의 정원 모두 유아교사자격 취득을 인가해 줬다”며 불교이동학과에서는 더 이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 불교이동학과에 합격한 20명의 학생만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함께 지적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학교 측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지 없이 2002년도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점이다. 학생선발실은 “공개적으로는 불교이동학과가 유아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문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서도 없어 보인다. 관련부서를 대부분이 ‘모른다. 소관부서가 아니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학교 측의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태. 최근 동국대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조계종에 종단명의로 불교유아교사 자격증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종단에서 유아교사자격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 법상 유치원교사활동을 보

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유아교사 자격을 주기 위해 유아교육학과를 신설한 학교측의 의도 자체는 나쁘게 없다. 하지만 불교유치원 교사의 꿈을 간직한 불교이동학과 신입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교수와 학교의 관계자들은 대안으로 불교이동학과 학생들에게도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특정종교의 이름을 붙인 사범학과를 인가해 줄 수 없는 교육부의 현실, 그리고 한 대학에 교과과정까지 같은 두 학과 체제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학교 측이 천명한 학교명칭변경이나 학생들의 전과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유아교육학과를 불교유아교육과로 전환하겠다”는 총장의 약속에 가깝게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은 너무 많아 보인다.

김준근 기자 gama@buddhania.com

지역	불교대학	개강일	전화번호
강원	원주불교대학	3월 4일	(033)732-4800
경기	봉선사불교대학	미정	(031)527-5974
	경기불교대학	3월 1일	(031)255-2692
경남	진주불교교양대학	3월초	(055)747-0108
	금강불교대학	3월 2일	(055)253-0108
	함양불교대학	3월초	(055)963-2471
	경남불교대학	3월 18일	(055)266-8150
	불지불교대학	3월 8일	(055)262-6663
	영축불교대학	3월 8일	(055)242-8393
	동도사범불교대학	3월 8일	(055)382-1001
	통도사불교대학	3월초	(055)382-7182
경북	포항불교대학	3월초	(054)247-4688
	북구사범교육원	3월초	(054)743-1106
	구미불교대학	4월 6일	(054)463-0571
광주	호남불교대학	3월 16일	(062)224-3335
	광주불교대학	3월 2일	(062)375-7633
	광주불교문화대학	3월초	(062)228-9098
대구	영남불교대학	3월 12일	(053)474-8228
	법랑사불교대학	3월초	(053)766-3747
	경북불교대학	3월 28일	(053)792-1353
	불교대구교육원	3월 7일	(053)253-7063
	대구불교대학	3월 3일	(053)256-3725
	보리불교대학	3월 8일	(053)522-7611
	직지불교대학	3월초	(053)588-3599
대전	광제사불교대학	3월 8일	(042)627-8600
	회암불교대학	3월초	(042)822-9219
	보현불교대학	3월 5일	(042)624-6555
서울	봉은불교대학	3월 13일	(02)516-5552
	삼화불교대학	3월 4일	(02)511-2026
	정도불교대학	3월 12일	(02)587-8994
	대원불교대학	3월 4일	(02)754-1613
	동방불교대학	3월 4일	(02)763-0229
	한국불교법사대학	3월 9일	(02)720-1836
	해동불교대학	3월말	(02)741-1485
	삼보불교대학	3월 6일	(02)913-2859
	조계사불교대학	3월 4일	(02)720-1391
	불교사회복지대학	3월 5일	(02)723-5101
	동산불교대학	2월 2일	(02)732-1206
	민해대학	3월초	(02)738-3386
	영산불교대학	3월 12일	(02)948-3111
	광운불교대학	미정	(02)389-8966
	금강불교대학	3월 1일	(02)576-6401
	일교문화대학	미정	(02)913-0753
	회계불교대학	3월 6일	(02)902-2663
	KBU불교아카데미	미정	(02)732-0239
울산	울산불교교육원	3월 7일	(052)261-1285
	장도불교대학	3월 15일	(052)258-9944
	울산사민불교대학	3월 중순	(052)252-4897
인천	부두나불교교양대학	3월초	(032)576-9741
전남	강진불교대학	3월 6일	(061)432-0837
	목포불교대학	3월 5일	(061)279-0577
	해남불교대학	3월 9일	(061)534-3355
전북	이리불교대학	3월 8일	(063)854-1578
	화엄불교대학	3월초	(063)277-3497
	전북불교대학	3월 3일	(063)226-7878
충북	충북불교대학	3월초	(043)263-2329
	광명불교대학	3월 12일	(043)294-6193
	법주사불교대학	미정	(043)543-3615
충남	충남불교교양대학	3월 5일	(041)577-4747
부산	대광불교대학	3월 14일	(051)816-2245
	금화사불교대학	3월 5일	(051)582-5916
	동국대학교전법대학	3월초	(051)642-6242
	금정불교대학	3월 10일	(051)866-7277
	부산불교교육대학	3월초	(051)867-9944
	대원불교교양대학	2월 19일	(051)852-0852
	부산불교교육원	3월초	(051)466-4080
	불교복지보건대학	미정	(051)462-5670
	해원불교교양대학	9월예정	(051)866-7771
제주	제주불교문화대학	3월 6일	(064)722-2829

예산·홍보·운영안 '未해결'

템플스테이 '앞으로 4개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0개 구장에서 열리는 2002 월드컵대회는 티베트 및 일본, 동남아 불교의 그늘에 가려 아직 외국에서는 생소한 한국불교를 알릴 절호의 기회다. 불교계는 월드컵대회 개최 10일전인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42일간) '전통사찰 외국인 문화체험프로그램' 이하 템플스테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화장실과 세면장을 개보수하는 등 외국 손님을 맞이 위한 편의시설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비록 정부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고유의 민족문화가 스며있는 전통사찰을 개방, 해외관광객의 숙박난 해소에 기여하는 물론 월드컵과 사찰문화체험을 접목한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키고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 운영 주체
현재 템플스테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곳은 조계종과 종단연합이다.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와 함께 해인사, 양산 통도사 등 전국 20개 교구본사급 사찰에서 선방과 수련시설을 외국인 숙박체험시설로 꾸민다. 조계종은 이번주부터 10개 구장 주변의 27개 사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프로그램 컨설팅 및 시설점검에 들어갔으며 사찰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개(구장별 2곳) 사찰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사찰 한 곳에 하루 50명씩, 월드컵 대회기간에 연인원 3만여 명의 숙박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통문화 선양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종단협은 태고종(봉원사 등 4곳), 천태종(삼광사 등 3곳), 관음종(묘각사 등 2곳), 진각종(탑주심인당 등 2곳), 여래종(약사 등 2곳)의 사업신청서를 받

은 상태이며, 내주중 조계종과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최종적인 사업주체를 정할 예정이다.

● 예산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02년 월드컵 대비 전통사찰 숙박시설 활용지원(템플스테이)비는 고작 10억원. 당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결의로 상정된 지원예산은 35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25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템플스테이 사업은 대폭 축소되어 추진중이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항목'으로 지정돼 사찰의 해우소나 사위실 등의 개보수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 템플스테이 예산은, 사찰에서 자부담 60%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 사찰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50개 사찰에서 20개 사찰로 운영주체를 축소한 조계종은 사찰 개보수 비용 보조금 10억원(전체 개보

수 예산의 40%)과 관광객 수입 8억4천만원(1인당 숙박료 5만원) 등 18억4천만원을 사찰의 수입예산으로, 사찰 개보수비용 자부담 15억원과 프로그램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5천5백만원 등 15억5천5백만원을 사찰의 지출예산으로 잡고 있다. 조계종의 템플스테이 운영예산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비 7천만원, 진행자 교육비 6천만원 등 1억3천만원에 책정하고 있지만 부족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지원 고작 10억원 개보수 비용 '자부담' 홍보사이트 개설 못해

● 사찰문화 체험프로그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1박2일의 경우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찰 예절, 예불, 사찰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선채조 및 참선, 산행, 등 만들기, 대장경 인경, 녹차 제조 및 헌, 포항, 탐돌이, 민속놀이(사물놀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수행 프로그램 위주의 2박3일 코스는 입제식, 사찰습의, 발우공양, 예불, 사찰안내, 문답 시간, 참선, 다도 시간, 운력 등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사진은 직지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발우공양 장면

으로 진행된다.

● 자원봉사자 활용

조계종은 국제포교사 및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합과는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자 40여명과 특역 자원봉사자 150여명(영어 80명, 중어 40명, 일어 30명)을 공개 모집해 4차에 걸쳐 연수회를 실시한 후, 템플스테이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만 18세 이상 불자로서 영어, 일어, 중어 중 1개국어 이상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2월 19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마감하고 2월 2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여명의 합격자와 국제포교사 및 연수생,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해인사, 송광사, 봉은사, 통도사 등에서 2박3일씩 연수를 실시한다.

● 홍보 방안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홍보는 일본의 경우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홍보 사이트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템플스테이 리플렛 배포, 언론 및 방송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문화는 불교만의 유산이 아닌 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대변하기에,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시급히 관광기금 등을 활용한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한평생 병약한 몸을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극복하고 입적 전까지 남북통일·세계평화(救國救世)를 염원했던 우리의 광덕스님!

1999년 6월 초판이래 소리없이 쇠를 거듭하며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광덕스님 시봉일기 ①②③ 글·송암지원 외

이번 설날 차례와 세배를 모시는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 — 절하는 모습부터 달라진다.

특히 대학신입생은 '시봉일기' 속에 스승과 제자가 펼치는 놀라운 인생드라마를 통하여 성공적인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게 될 것이다.

- 제자에게 전달해 활짝 핀 꽃잎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광덕스님, 그러나 이처럼 다정했던 스승도 수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그지없었다. **조선일보**
- 출세간의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세속의 사제관계를 넘어 부자관계·부부관계를 합한 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다. **동아일보**
- 자애로움과 겸손으로 제자를 이끄는 광덕스님, 오직 경애감으로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 수해처럼 그려져 특자의 가슴을 적신다. **한겨레**
- 금하당 광덕 스님은 한국 불교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불멸의 햇빛이다. **창화(성불사 조실, 조계종 원로)**
- 스승 존경의 풍토가 이 시대에 다시 기복 차이를 비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한다. **김종서(서울대 명예교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이 시대 보현보살로 불리는 광덕스님, 불교의 구국구세(救國救世)가(覺)운동에 몸바친 스님의

삶을 실재가 마치 붓으로 그린 듯 고스란히 이 책에 담아 내었다. 실함 없이 법(法, 진리)을 설하는 스승의 일상(日常)과 들을 없이 법을 듣는 제자의 시봉(侍奉), 이 꾸밈없는 스승과 제자의 이심전심을 통해 불교의 인간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영재(서강대 불리학과 교수)**

- ① 권 '내일이면 눈썹', 반양장 328쪽 · 값 8,500원
- ② 권 '정경다리', 반양장 424쪽 · 값 9,500원
- ③ 권 '구국구세의 햇물', 반양장 472쪽 · 값 10,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전화/(031)676-8700 · 팩스/(031)676-8704 · E-mail/dopiensa@kornet.net

DOPIANSA